

교회의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5/12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18, 21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21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후 4:10-11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5: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답은 마태복음 16 장 21 절부터 26 절까지에서 발견된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 마태복음 16 장 21 절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죽음과 부활임을 보여 준다. 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형되셨지만, 이 변형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영구적으로 변형되셨고 ... 변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교회는 이 변형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교회는 타고난 생명이나 육체에 속한 사람들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 장 24 절에서 '나'는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나'는 본이자 길이다. 더 나아가 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이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우리의 더럽혀진 자아뿐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순결하고 죄 없는 자아까지도 부인되어야 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4 장, 119-120 쪽, 3 장, 1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6 장 22 절은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긍휼히 여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었다. 이 절은 번역하기가 까다롭다. 어떤 사람은 이 절이 “주님,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번역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께 그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 다른 번역은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이다.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인지 주 예수님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강조점은 ‘자아(self)’에 있다. 주어가 하나님이든 주 예수님이든 강조된 것은 ‘자아’이다.

마태복음 16 장 23 절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다음 24 절과 25 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들에 따르면, 주님은 본이시자 길이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즉 그분을 본과 길로 취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self)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 장 16 절부터 19 절까지를 해석하려면 21 절부터 26 절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 마태복음 16 장 18 절은 문들을 말하고, 19 절은 열쇠들을 말한다. 문들과 열쇠들이 무엇인지 알려면 16 장 21 절부터 26 절까지를 숙고해야 한다. 사탄은 문들을 통해 나온다. 첫 번째 문은 자아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사탄이 나오는 음부의 문들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조차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든 악하든, 자아는 사탄이 나오는 첫 번째 문이다. 자아에 더하여, 마태복음 16 장 21 절부터 26 절까지는 또한 생각과 혼생명에 대해 말하는데, 이 둘 역시 사탄이 나오는 문들이다. 따라서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은 사탄이 나오는 주된 문들이다. 많은 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온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그에게 열려 있는 문이었기 때문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3 장, 106-10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3-4 장

5/13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19, 23, 24, 25-26

19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롬 6:12, 14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엡 6:16-17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교회는 ... 주로 자아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 언젠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비록 교황이 두렵기는 하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 강한 교황 곧 자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자아는 혼의 체현이고,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은

하나 안의 셋이다. 이 셋의 배후에는 교회생활을 손상하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하여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3 장, 108-10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체현이시듯이 자아는 사탄의 체현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마 16:23)라고 말씀하신 사실에서 나타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사탄이 베드로 안에 체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은 어디에 체현되어 있었는가? 사탄은 베드로의 생각을 점유함으로써 그의 혼 안에 체현되어 있었다. 생각은 혼의 주도적인 부분으로서 혼을 대표한다.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점유하는 것이다.

창세기 3 장 1 절부터 6 절까지에서 ... 우리는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몸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사탄의 사상, 사탄의 생각이 하와의 혼 안에 주입되었음을 본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녀의 생각 안에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1 절)라고 질문했다. 바로 그때 사탄은 하와 안에 자신의 사상을 주입했다. 그 질문이 하와의 생각을 흔들었다. 하와는 사탄에게 대답했지만(2-3 절), 그렇게 하는 순간 즉시 그녀의 생각이 사탄의 사상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었다’.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깬 때 불현듯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관한 비판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은 사탄의 미끼이며, 그 미끼에 더 신경 쓸수록 여러분은 사탄의 낚싯바늘에 더욱 걸려든다. 결국 여러분은 교회생활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 하와의 생각은 공격을 받았다. 그때 하와의 생각은 그녀 안에 주입된 사탄적인 사상으로 중독되었다. 그런 다음 하와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운' 그 나무의 열매를 보자(창 3:6 상) 그녀의 감정이 동요했다. 그런 다음에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정하였고 '그 열매를 따 먹었다'(6 하절). 이때 혼의 각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중독되고 말았다.

자아의 기원은 사탄이 자신의 사상을 사람의 생각 안에 주입한 것이었다. ... 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일 때 그 혼은 즉시 자아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자아 안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혼으로 만드셨다. 사람은 혼(창 2:7)이며, 혼인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혼은 자아가 되었다. 자아는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우리가 자아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면 자아가 무엇인지를 보았을 것이다. 자아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3 권, 하늘에 속한 이상, 4 장, 288-29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5-6 장

5/14 수요일

아침의 누림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고전 15:31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마 7:21-23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할 것이지만,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빌 2: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아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젯거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들을 의지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에게서 독립적일 때마다 우리는 자아, 곧 독립적인 혼 안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몸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교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체험에 속한 문제이다. 우리의 체험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서 독립했을 때 하나님에게서도 독립했다는 느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몸을 의지한다면 또한 주님께 의존할 것이다. ...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몸에게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이 몸의 지체들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되기를 힘쓰고 몸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몸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몸 안에서 건축될 때 분명히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3 권, 하늘에 속한 이상, 4 장, 293-29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가를 중시하신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러지 않는지에 주의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독립적인지 아니면 의존적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독립한다면 자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몸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과 몸은 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몸을 의지하는 것이고, 몸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에게서 독립한다면 자연히 주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고 자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는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과 합병된다. 이렇게 합병된 회사 안에서 자아는 총지배인이고 사탄은 사장이다 오,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이상을 얼마나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자신이 주님과 몸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미워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몸과 형제자매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안으로 안다.

몸에게서 독립한 어떤 형제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평안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수록, 그들은 더욱 평안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러분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평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평안인가?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낸 평안, 곧 자아가 만들어 내고 자아에 의해 유지되는 평안이다.

자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몸과 많은 관계가 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고, 이 회복은 결국 몸의 건축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이를 것이다. 몸의 원수는 자아이다. 몸에게 가장 큰 문젯거리이자 몸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것 또한 자아이다. 우리에게 자아가 있다면 몸은 없다. 반대로 우리에게 몸이 있다면 자아가 없다. 몸이 건축되려면 자아, 곧 독립적인 혼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자아는 독립적인 ‘나’이자 독립적인 ‘나를’이다. 우리가 독립적일 때, 우리는 자아 안에 있고, 몸은 사라지며,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3 권, 하늘에 속한 이상, 3 장, 295-2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3 권, 하늘에 속한 이상, 3-4 장

5/15 목요일

아침의 누림

눅 23: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겉옷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 20:26-28

26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27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롬 12: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마 6:14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고전 12:25

25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가볍게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말라. “저는 교회생활 안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장로들과 다른 인도하는 이들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늘 고통받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기 마련이다. 한편으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모든 것을 유죄판결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여러분이 마음 상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를 잠가 버린다면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 사탄이 자아라는 열린 문을 통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한다.

교회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이다. 교회가 옳든 그르든 그것은 여전히 교회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 핑계를 댄다면 교회의 건축은 좌절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3 장, 11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를 건드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자아가 열린다. 우리가 음부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음부에서 무언가가 나온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를 잠가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길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아를 걸어 잠그는 것이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들은 복이 있다. ...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심판대를 세우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곳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를 물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변명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이다. 어떤 병균들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지만, 어떤 병균도 책상을 병들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아로 가득하다는 증거이다. 나의 자아가 잠겼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우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특별한 친구로 여긴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이 자아로 가득하다는 표시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취향에 맞고, 여러분도 그들의 취향에 맞는다. 여러분은 서로의 취향을 살피운다. 이것은 큰 손상을 주며 건축을 방해한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순수하고 신성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사적인 애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의 건축을 위해 천연적인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어떤 천연적인 애정이나 관계나 감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어떤 형제가 나를 천연적인 애정으로 사랑할 때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 우리가 어떤 형제의 자아를 살피우고 있고 그 형제가 우리의 자아를 살피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자아를 걸어 잠그지 않는다면, 사탄이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올 것이다. ...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건축하실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교회들 안에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이 있는 것으로 인해 기쁘다. 그렇지만 우리는 체험을 통해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에서 살 때

두 종류의 결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들이 천연적인 우정을 형성하면, 다른 사람들은 씁쓸함을 느끼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실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아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에 사는 이들의 자아는 반드시 잠겨야 한다. 자아가 잠기면, 우리에게 건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잠겼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아 부인이라는 탁월한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을 잠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건축은 좌절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3 장, 111-1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48

5/16 금요일

아침의 누림

마 26:39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엡 4: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골 1: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요 17:21, 23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 정부가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의심할 것 없이 십자가는 범죄자에게 고난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완전히 달랐다. 그분은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께서 원하신 것이다. ...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따라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시어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십자가에 계셨을 때 큰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고통은 그분께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셨다. 마태복음 26 장 39 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셨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26:42) 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가셨으며, 십자가에 머무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십자가가 첫 번 째로 언급되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4 장, 122-12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마 16:24)라고 말씀하셨다. ... 그러나 어떤 형제들은 “제 사랑스러운 아내는 몇 번이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형제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내에 의해 처형되는 범죄자들에 불과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이가 아니라 처형되는 범죄자에 불과하다. ... 여러분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아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하자. 어떤 이혼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 관하여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형제는 아내로 인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범죄자처럼 고통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저에게 안배해 주셨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제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십자가를 집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누릴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로 건축되고 있다는 강한 증거를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당신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마태복음 26 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셨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은 열두 군단의 천사들을 불러서 당신을 구출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 주님, 당신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이제 우리도 동참하여 당신의 생명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당신의 뜻은 우주 안에 하나의 교회가 있고, 각 도시마다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은 또한 제가 모든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는 이라면, 저는 선택이나 선호 없이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호와 취향은 끊임없이 요동할 것이다. ... 교회생활과 결혼 생활에는 어떤 요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4 장, 123-128, 1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7-8 장

5/17 토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롬 14:7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 10:10-11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사 53:12

12 그러기에 나는 위대한 이와 함께 그에게 몫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는 강한 이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으나 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까닭이라.”

요 12:24-26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혼생명을 얻는 것은 혼의 누림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혼생명을 잃는 것과 관련하여 주님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 겉으로 보기에 혼생명을 잃는 것은 고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기쁨이다. 한 자매가 남편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혼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 자매와 그녀의 가정에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합당한 가정생활이 세워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다. 우리의 혼적인 누림을 잃는 것이 기쁨인 이유는, 그 결과로 우리가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꺼이 우리 혼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서 양육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5 장, 135, 140-14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고,,오히려 기쁨으로 가셨다(비교 히 12:2).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그분의 혼생명을 잃으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혼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 자신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많은 밀알이 산출될 것을 아셨다(요 12:24).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구하는 모든 즐거움은 혼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음악을

듣거나 어떤 운동을 즐길 때 그들은 행복하다.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은 마작을 좋아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최고의 오락이요 누림이다. ...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마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 결국 그의 혼생명을 잃을 것이다. 마작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의 혼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 하지만 지금 혼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잃을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혼생명을 아주 많이 구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 혼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의 누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 그분 자신은 심지어 땅에서도 거절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거절당하셨다. 이 현시대, 곧 교회 시대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시대이다.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 그분께는 어떤 기쁨도 없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로서 그분과 운명을 함께한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혼의 누림을 갖는 시대가 아니라 그 누림을 잃는 시대이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그분께서 땅을 누리실 때일 것이다. 사탄은 결박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땅을 회복하실 것이며, 온 땅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는 땅을 누리실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그 누림에 동참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 장 21 절과 23 절의 의미이다. 이 두 절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러한 일은 주 예수님께서 땅을 되찾으시고 누리시는 때인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땅을 다시 소유함으로써 누림을 가지실 것이다. 그때에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 곧 그분의 동반자들에게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혼의 구원일 것이다.

한 형제가 주님께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다른 형제에게 주라는 부담을 받았다. 그러나 원수는 그에게 금액을 낮추라고 유혹했다. 그 형제가 빚 비춤을 받아 원수의 책략을 보았을 때, 그는 “사탄아, 네가 이것에 관해 또다시 내게 말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 거액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는 것은 우리 혼생명을 잃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5 장, 141 쪽, 6 장, 155-156, 159-1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4 장

5/18 주일

아침의 누림

마 25:21, 23

21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고전 2:9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눅 14: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마 16:25-28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